

‘후후한 교사, 꿈틀거리는 아이들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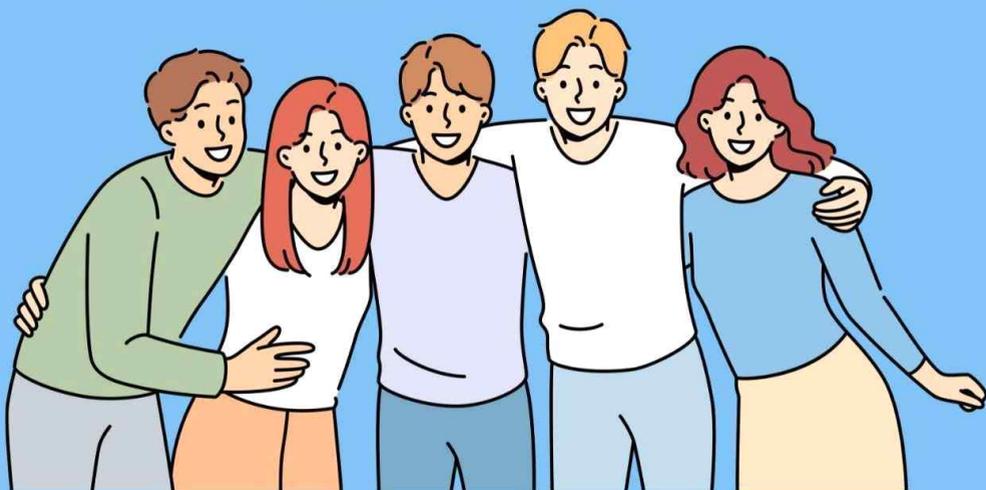


가정

하나님께
예배 드립니다



LOVE



충일교회 가정예배부

설교

여러분, 혹시 이런 적 있나요?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,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틀어져 버린 경험요. 예를 들어, 학교에서 친구랑 같은 조가 되길 기대했는데 전혀 예상 못한 친구와 조가 되었다거나, 수학 시험이 쉬울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려워서 당황했던 순간요.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,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길이 ‘가장 좋은 길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**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상 밖의 낯선 길로 인도하셨어요.**

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.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운 지름길이 아니라 멀고 어려운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이끄셨어요. 왜일까요? 하나님은 그들이 전쟁을 겪으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러셨다고 해요(17절). 즉, 눈앞의 편함보다 ‘지속적인 믿음의 길’을 선택하신 거예요.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만,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에 최선의 길로 인도하세요.

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.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. 낮에는 구름 기둥,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(21-22절). **이건 단순한 길잡이가 아니라, “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”는 하나님의 메시지요.** 어두운 밤길을 불빛으로 밝혀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진로, 인간관계,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진 우리 곁에 함께하십니다.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을 때에도 말이죠.

사랑하는 여러분,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. **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,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보세요.**

예배 순서

사도신경 다 같이

찬 송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다 같이

말씀봉독 출애굽기 13:17~22 다 같이

설 교 낮선 길,
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설 교 자

말씀나눔 다 같이

합심기도 다 같이

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
자녀가 부모에게

주기도문 다 같이

- ★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
- ★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.

찬 양

주를 모든 자들이



▶ 찬양 영상 바로가기

축복기도문

사랑의 하나님,
내 생각과 다른 길을 가게 하실 때도
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.
낮에는 구름 기둥,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,
지금 내 삶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세요.
불안하고 낯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게 해 주세요.
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말씀나눔

1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름길이 아닌 광야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?
2. 내가 요즘 겪고 있는 ‘낯선 길’은 어떤 것이 있나요?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?